

아동작업치료사의 부모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주영*, 정남해**

*동주대학교 작업치료과 강의중점조교수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연구방법 : Colaizzi
6
, 가

결과 : 2, 4, 21 가 . 2
가, 4

결론 :

주제어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체 아동 인구의 수는 감소하지만, 장애아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전체 아동 대비 장애 아동 인구의 비율은 0.80%를 넘었고, 2018년에는 0.89%

에 달하였다(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9).

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아동은 부모 및 가족의 지원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양육, 교육, 재활 등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에너지 소모, 경제적 비용 부담 및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다. 이로 인

교신저자: 정남해(whitenam-hae@nate.com)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DSU-20210004)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1차: 2021.07.22. / 2차: 2021.08.25.) || 게재확정일: 2021.09.24.

하여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대처,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친지,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보인다(Chung & Cho, 2013). 발달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Lee(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이 비장애아동 부모보다 낮았으며 경제생활, 신체상태 및 기능, 이웃관계, 가족 관계, 정서 상태, 자아 존중감 영역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아동은 발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재활치료센터를 선택하는 경험에 관해 조사한 Lee와 Kim(2014)이 보고하길 장애아동 부모는 아동의 장애를 인식한 후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나 치료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업치료사가 부모 상담을 통해 재활치료 및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보고 하였다. 장애아동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 부모상담에 관하여 조사한 Jeon, Yoo, Jung과 Lee(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상담을 통해 아동의 발달수준과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부모는 전문가와 장애아동에 관하여 상담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양육, 교육, 재활의 과정에서 혼란이 감소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심적인 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작업치료사는 아동의 행동, 작업 및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 중재, 상담 및 교육을 한다(Case-Smith, 2007; Myers, 2008). 아동작업치료 대상자인 아동은 많은 경우 만성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아동, 가족과 치료사 간의 협동적 파트너십이 지속되어야 한다(Denham et al., 2008). 부모-치료사 관계에서 치료사는 치료와 상태에 대한 지식과 견지를 갖춘 기술적 전문가이고, 부모는 아동, 가족, 강점, 요구와 가치에 대한 전문가이다(Hanson & Carta, 1995). 아동의 부모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전문가가 결정한 계획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아동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중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사와의 촉진적 상담 관계를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를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Choi, Kim, & Yoon, 2007).

직접 부모상담을 실시하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다양한 아동과 부모를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신임아동작업치료사들이 부모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며, 아동작업치료사들이 부모상담 기술 향상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부모상담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과 경험이 가지는 의미 및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작업치료사가 부모상담을 시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함으로써, 추후 아동작업치료사들의 부모상담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아동작업치료사의 부모상담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포함 조건은 아동작업치료 임상경력 8년 이상이면서 현재 사설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자로 하였다.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모상담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사설센터가 다른 기관보다 부모상담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사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표집방법은 의도성 추출방법으로 연구자가 조건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직접 섭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6명으로 모두 여성이었고, 아동작업치료 경력은 평균 10년이였다(Table 1).

2. 자료수집

연구기간은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umber	Gender	Age (year)	Education	Career (year)	Working type	Region
1	Female	39	Master	16	Full - time	Seoul
2	Female	40	Master	17	Part - time	Gyeongsang - do
3	Female	35	Ph.D candidate	8	Part - time	Gyeongsang - do
4	Female	35	Master	11	Full - time	Gyeongsang - do
5	Female	36	Bachelor	14	Full - time	Seoul
6	Female	33	Ph.D candidate	9	Part - time	Chungcheong - do

Ph.D: Doctor of Philosophy

Table 2. Questions for the interview

Research question	Interview question
As a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what experiences did you hav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was a good experienc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was the difficult experienc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does parents consultation mean to you?
	What does parents consultation mean for children's parents?
	What kind of efforts do you make to provide good parents consultation?

지이었다. 연구질문은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부모상담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이고, 면담 질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Hinojosa, Sproat, Mankhetwit와 Anderson(2002)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대일 개별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면담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면담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녹음 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전체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Giorgi의 방법은 연구참여자 각 개인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Colaizzi의 방법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Kim et al., 1999).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하여 대상자와의 면담 내용을 읽는다. 둘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general statement)로 재진술한다.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 부터 구성된 의미를 이끌어낸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모음(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정리한다. 여섯째, 주제를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으로 기술한다.

4. 윤리적 이슈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이나 생활사건에 참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상자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윤리적 이슈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의서를 준비하여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먼저 연구자를 소개하면서 연구 목적, 내용 및 대상자의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녹음을 하는 이유와 연구자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임했으며, 시간과 노력의 할애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

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 질적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Lincoln와 Guba(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첫째, 연구결과가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녹음 파일과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검토하였고, 이메일로 점검받았다. 둘째,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적용성을 지키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부모상담 경험이 충분히 있는 임상경력 8년차 이상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셋째, 신뢰도에 관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분석과정 등에 관하

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의미단위 및 중심의미 도출은 연구자 외에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이 개별로 분석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중립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분석과정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믿음을 검토하여 개입하지 않도록 객관적 사고, 판단 중지,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III. 결과

면담 내용 분석으로 2개의 범주화, 4개 주제모음, 2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2개의 범주화에는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었고, 4개의 주제모음으로는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 작업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이었다. 전체적 결과에 대한 도식은 Figure 1과 같다.

Table 3. Structure of experiences on parents consult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for children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The importance of parents consultation	The meaning of parents consultation	Coordination of treatment direction
		Supporting parent - child relationships
		Modelling for parents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Parent - Child - Therapist reciprocity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therapist
		Building Rapport with children
		Affection for children
		Responsibility for efforts of parents
		Learning through the senior therapist
		Concern for children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s consultation	Effort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Expansion of communication methods
		Intervention approaches for parents
		Active communication with team members
		Separation of work and daily life
		Leverage your parenting experience
	Essential competencies	Expertise
		Appeared to be determined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Ability to listening
		Docu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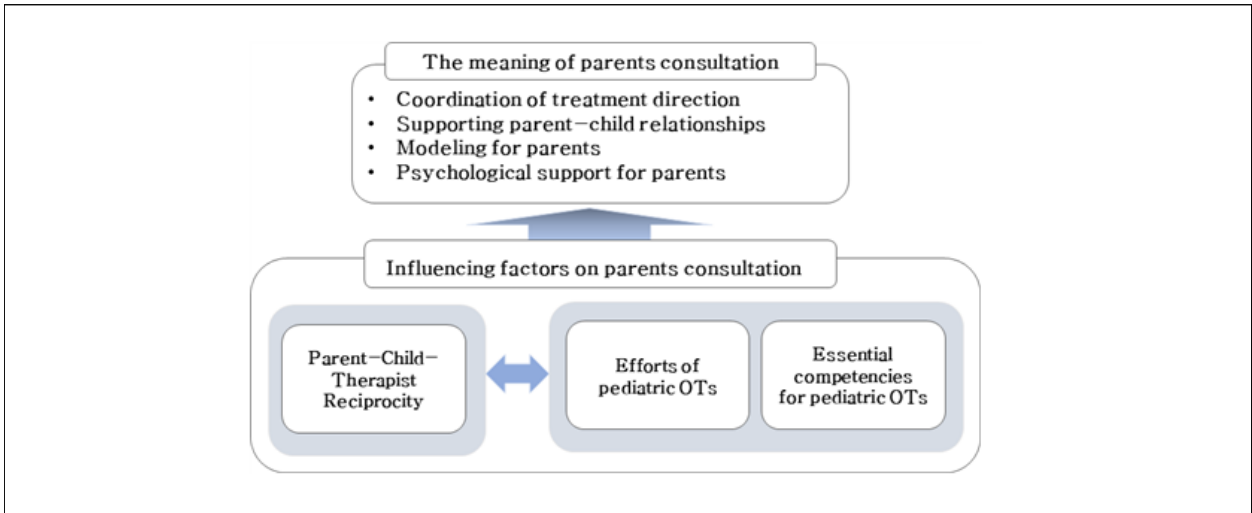


Figure 1. Meaning and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s consultation

OT: Occupational Therapy

1. 부모상담의 중요성

1)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상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주제는 아동치료에 대한 치료사와 부모 간의 방향성 조율, 부모와 아동의 관계, 모델링,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1) 치료의 방향성에 대한 조율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 상담을 통해 치료의 방향성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의 치료 목표를 듣고 맞춰간다고 하였다. 부모 상담을 통해 치료의 방향성을 맞추어 가고 협력하며 치료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을 위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치료사가) 서로 방향을 맞춰가야 합니다. 엄마가 변해야 아이도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에서도 치료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2) 부모와 아동의 관계 지지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에게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감은 부모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부모상담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가 심하든 경하든 아이 자체가 밝은 애들이 있어

요. 그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죠.”

“간혹 기능은 좋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아이가 있어요. 이걸 안정적인 애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모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님께 인지시키려고 해요.”

(3) 부모를 위한 모델링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 시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 아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치료사가 모델링을 제공하였다.

“아동과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담하면서 좀 더 설명해주곤 해요.”

“치료사를 통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부모의 심리적 지지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이 치료사가 부모의 심리적인 부분을 지지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책감, 과도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캐릭터가 너무 강한 어머니도 어렵지만, 너무 어려서 금방 좌절해버리는 엄마가 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부모상담할 때 더 신경을 쓰며 전달하려고 해요.”

“부모가 장애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아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동에게)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강조해요.”

2.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에 대한 주제로는 부모와 치료사와의 관계, 아동과 치료사의 관계형성, 아동에 대한 애정, 아동 부모의 노력이 도출되었다.

(1) 부모와 치료사와의 관계

참여자들이 보고하길, 부모상담은 부모와 치료사와의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치료사의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치료사와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치료사를 믿지 못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와는 상담이 짧게 끝난다고 하였다.

“치료사를 믿어준 엄마들은 늘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엄마가 태도가 불손한 경우에는 관심 가질 만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게 되고 상담을 길게 안하게 되더라고요.”

(2) 아동과의 관계형성(rapport)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상담 뿐만 아니라 아동작업치료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과의 라포라고 하였다. 부모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기 전에 아동과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아이와 라포를 형성해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상담에 앞서 아동과 라포형성이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아이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부모도 치료사를 신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3) 아동에 대한 애정

참여자들은 자신이 치료하는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아동이 보고싶기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아동이 진전을 보일 때는 감동하기도 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엄청 기다려지고 만나면 행복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래 치료한 아동은 인생의 한 부분을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죠.”

“표정이 없는 아동이었는데 얼굴 마사지를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웃었는데, 눈물이 나던 기억이 나요.”

(4) 아동 부모의 노력에 대한 책임감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모를 경험하였다. 치료사가 부모 상담 시 가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반면,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모도 있었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가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사와 꾸준히 상호작용하려는 부모를 경험하면서 부모상담을 더욱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은) 굉장히 예민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이었고 어머니가 교사였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제가 아이와의 치료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엄마도 동영상 찍어 올리면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일주일간의 아이 활동과 반응을 수첩에 빠곡히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 노력에 감사하죠. 그러니 저도 어머니와의 상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2) 아동작업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아동작업치료사의 노력에 대한 주제에는 선임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민, 전문성 강화, 전달방법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중

재접근,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리, 육아 경험의 활용이 도출되었다.

(1) 선임 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임 시기에는 부모상담이 어렵게 느꼈다고 하였다.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주로 주변의 치료사들이 부모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차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연습을 하었다고 하였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게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때는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어서 전달하는 연습도 했었죠.”

(2) 아동에 대한 고민

아동작업치료사들은 각 아동의 개별성, 강점, 주된 문제,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아동작업치료와 부모상담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분석 및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에는 아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아동이 과연 말을 할까? 과연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3) 전문성 강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자신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 양육, 심리 등 다양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책, 강의, 교육콘텐츠, 전문가 자문 등을 찾는 등 공부를 계속하였다.

“저도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집에서 다 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엄마를 만나간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줄까 고민하면서 관련 책도 찾고 정리하고...”

(4)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

아동작업치료사들은 효율적으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달 방법을 시도하였다. 글이나 그림으로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거나 아동에 대한 동영상 촬영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거나 네이버 밴드 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반응, 치료 활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아이의 수업을 동영상 촬영해서 아동이 보인 반응에 대해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려고 했어요. 시각적으로...”

“(N사) 밴드를 만들어서 아동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코멘트 달고 하면 부모님과 소통도 되면서 기록도 되더라고요.”

(5)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아동작업치료는 가족중심접근이 중요하다. 아동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부모상담을 통해 확인된 부모의 우울감, 부부 문제 등에 관해서도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접근을 권유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모자 심리치료를 권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만 심리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엄마도 함께...”

“아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엄마가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나와 상담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센터의 양육 코칭 선생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6)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아동의 재활적 접근, 발달 촉진을 위해서 아동작업치료사와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협업해야 한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치료 시행 및 부모상담을 위하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체육교사, 교사 등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였다.

“언어, 작업, 놀이치료, 심리, 특수체육교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아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전문가에게 연락을 드리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한번 통화를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드렸어요.”

(7) 일과 일상의 분리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과 부모상담에 대한 지나친 고민으로 인하여 지치는 경험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아동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과 일상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아동치료 및 부모상담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가 말하는 거 밤새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과 일상을 분리하면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8) 육아 경험의 활용

육아의 경험이 있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이 부모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아동을 바라보는 경험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또래 엄마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아동작업치료사로서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하였다.

“출산 전에는 1~3살 아동들은 어떻게 치료할 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실제로 장난감이나 콘텐츠를 많이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 다른 엄마들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고. 치료받는 아동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동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위해 전문성 외에 단호함, 효과적인 정보전달, 경청,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이 있었다.

(1) 전문성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시 전문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분석하고 중재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작업치료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점과 다학문적인 접근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부모에게) 지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긴 것 같아요. 비슷한 케이스의 아이들을 봐오면서 쌓인 경험이지요.”

“아동작업치료학은 기본으로 하고 보조공학이나 심리학 등 여러 영역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단호함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주로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에게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도 알고 저도 아는데, 단호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 효과적인 정보전달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 시 부모가 이해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설명,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말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4) 경청하는 능력

참여자들은 아동의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 발달, 가족의 반응, 가정의 문제 등 많은 고민들이 있고 이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치료사들은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저는 엄마의 문제든 집 안의 문제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는 편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편한 느낌을 드리는 것 같아요. (부모

상담을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어머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어머님께서 아이의 히스토리를 더 잘 오픈 해주시기도 하구요.”

“상담 시에는 이야기하면서 잘 웃고 감정에 잘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5) 문서화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위해 문서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치료 활동, 목표설정, 아동의 반응 등에 대한 기록은 아동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되며 효율적인 부모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잘 적어 두어야 해요. 부모상담을 하다 보면, 차트가 다 근거가 되거든요.”

“아동치료 및 부모 상담에 관한 차트 기록이 체계적이지 못해요. 스스로 문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사설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작업치료사의 부모상담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현상학적으로 알아보고, 추후 부모상담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에서 상담은 임상가가 클라이언트와 협력하기 위해 지식과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중재 유형으로 부모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이끌어낸다(AOTA, 2008).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부모상담이 치료의 방향성 조율,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 지지, 모델링, 부모의 심리적 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작업치료는 아동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가족중심접근으로 이루어진다. Wallen과 Doyle(1996)은 가족중심접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 모든 과정에서 치료사와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최적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치료사의 협업에서

치료사는 치료와 상태에 대한 지식과 견지를 갖춘 기술적 전문가이고 부모는 아동, 가족, 강점, 요구와 가치에 대한 전문가이다(Hanson & Carta,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부모상담이 치료의 방향성 조율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에서 199명의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Hinojosa 등(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료사가 부모와 협력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치료사는 교육과 임상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지각을 조사한 Kolehmainen, Duncan, McKee와 Francis(2010) 연구에서 보고하길, 부모는 치료사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부모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 상담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부모의 어려움도 함께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Yong(2012)은 치료사들이 장애아동 부모와의 상담을 위해서 부모의 내면적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Hinojosa 등(2002)은 치료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직접 치료 제공자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역할까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상담의 과정에서 부모의 심리적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하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가 치료실의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아동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lewellyn(1994)는 치료사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기대한다면,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ompson(1998)이 보고하기를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 및 가족의 일과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였지만, 치료사는 부모의 다른 할 일 또는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작업치료사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의 계획과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이었다. 아동작업치료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는 치료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업치료사는 가족구성원이 아동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문제의 초점을 일상생활 수행과 연관시켜 의뢰된 문제점, 가족, 아동과 교사, 다른 보호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Dunn, 2011).

본 연구에서도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임 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 전달방법의 확장,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리, 육아경험의 활용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초임시기에 부모상담 기술을 선임 치료사를 통해 배웠다고 하였다. King, Teplicky, King과 Rosenbaum(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수준의 치료사들은 초임 치료사와 비교하여 아동의 문제에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게 중요한 것, 가족의 맥락 및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아동의 장애가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치료 경력이 8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초임 작업치료사 시기에 부모상담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부족의 아쉬움과 부담감을 언급하였다. 이는 작업치료 교육과정 내에서도 적절하게 교육하고 있지 않고 초임 치료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며,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상담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위하여 다른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가와의 소통은 아동 부모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Kolehmainen, Duncan, McKee, & Francis, 2010). 작업치료사가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는 협력적 상담이란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과 책임 소지가 있는 사람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문제해결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추후 문제를 더욱 민감하고 역량있게 조절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통합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협력적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토의, 학생의 특성에 대한 안내, 그룹 역동, 보조공학 및 대체 의사소통 소개, 목표 설정, 교과과정 조정 등을 시행한다고 보고하였다(Santos & De La Libra, 2016). 이렇듯 다양한 전문가가 목표, 의사결정, 책임, 문제해결을 공유하기 위해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상담을 위한 육아경험 활용은 흥미로운 답변으로, 아동치료 분야에서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육아는 매우 개인적이면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이다(Llewellyn, 1994). 작업치료사는 육아의 공통적인 경험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부모의 고유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자녀와의 상호작용, 위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가족 내 역할, 감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양육 스타일은 배경 및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중재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지가 다르기 때문에(Humphry & Case-Smith, 1996; Thompson, 1998), 부모상담에 실행에 있어 육아경험의 활용은 매우 의미있지만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의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가 부모상담 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모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Case-Smith & Nastro, 1993; Dinnebeil & Rule, 1994; McKenzie, 1994;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Minke & Scott, 1995; Trivette, Dunst, Hamby, & LaPointe, 1996), 부모의 관심에 민감하고 반응적일 것(Case-Smith & Nastro, 1993;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Summers et al., 1990),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사항을 제공할 것(Dinnebeil & Rule, 1994; Fyffe, Gavidia-Payne, & McCubbery, 1995; McKenzie, 1994), 부모를 친구처럼 대할 것(McKenzie, 1994;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Summers et al. 1990; Thompson, 1998)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위해 객관적

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성 및 문서화, 부모에 대한 열린 마음과 걱정에 대한 공감을 위한 경청,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역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호함이 부모상담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호함과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사가 여러 상황과 부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반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의 의미와 관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부모상담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상담과 관련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초임 아동작업치료사에게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아동작업치료사의 부모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설센터에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사설센터에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이해하고자 시행하였다. 그 결과 2개의 범주화, 4개 주제모음, 2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범주 하에,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 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요하게 논의하였다.

아동작업치료사는 경험적 시행착오를 통해 선임 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 전달방법의 확장,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리, 육아경험의 활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를 위한 부모상담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 교육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작

업치료사의 부모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2nd edi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6), 625-683. <https://doi.org/10.5014/ajot.2014.682006>
- Case-Smith, J. (2007). Deriving practice implications from this issue's sample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4), 375-377. <https://doi.org/10.5014/ajot.61.4.375>
- Case-Smith, J., & Nastro, M. A. (1993). Th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on mother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 811-817. <https://doi.org/10.5014/ajot.47.9.811>
- Choi, S. H., Kim, B. Y., & Yoon, C. Y. (2007). The effects of disability and family factors on needs of support service and quality of life in parents'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6(4), 437-464.
- Chung, Y. S., & Cho, Y. S. (2013). Parent counseling for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4(2), 1-15.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Denham, C. R., Dingman, J., Foley, M. E., Ford,

- D., Martins, B., O'Regan, P., et al. (2008). Are you listening. Are you really listening. *Journal of Patient Safety*, 4(3), 148–161.
- Dinnebeil, L. A., & Rule, S. (1994). Variables that influence collaboration between parents and service coordinator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 349–361.
- Dunn, W. (2011). *Best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community settings* (2nd ed.). NJ: SLACK Incorporated.
- Fyffe, C., Gavidia-Payne, S., & McCubbery, J. (1995). Early intervention and families in rural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0, 34–39.
- Hanson, M. J., & Carta, J. J. (1995).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families with multiple risks. *Exceptional Children*, 62, 201–12.
- Hinojosa, J., Sproat, C. T., Mankhetwit, S., & Anderson, J. (2002). Shifts in parent–therapist partnerships: Twelve year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 556–563. <https://doi.org/10.5014/ajot.56.5.556>
- Humphry, R., & Case-Smith, J. (1996). Working with families. In J. Case-Smith, A. S. Allen, & P. Pratt (Eds.),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3rd ed., pp. 67–68). St Louis: Mosby.
- Jeon, M. R., Yoo, E. Y., Jung, M. Y., & Lee, J. Y. (2016).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and demand of consultation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area of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4(2), 47–58. <https://doi.org/10.14519/jksot.2016.24.2.04>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King, S., Teplicky, R., King, G., & Rosenbaum, P. (2004). Family-centered services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their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eminars in Pediatric Neurology*, 11(1), 78–86. <https://doi.org/10.1016/j.spen.2004.01.009>
- Kolehmainen, N., Duncan, E., McKee, L., & Francis, J. (2010).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occupational therapy processes: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3(5), 192–199. <https://doi.org/10.4276/030802210X12734991664101>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9). *2019 disability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koddi.or.kr/data/news_view.jsp?brdNum=7408254&brdTp=&searchParamUrl=page%3D1%26amp%3BpageSize%3D20
- Lee, J. E. (2009).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6(2), 85–104.
- Lee, N. H., & Kim, K. M.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electing rehabilitation therapy cent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1), 41–52. <https://doi.org/10.14519/jksot.2014.22.1.0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Llewellyn, G. (1994). Parenting: A neglected human occupation. Parents' voices not yet heard.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1, 173–176.
- McKenzie, S. (1994).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ir perceptions of generic children's services and service professionals.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19, 12–17.
- McWilliam, R. A., Tocci, L., & Harbin, G. L. (1998). Family-centered services: Service providers' discourse and behaviour.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 206–221.
- Minke, K. M., & Scott, M. M. (1995). Parent–professional relationships in early intervention:

-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5, 335-352.
- Myers, C. T. (2008). Descriptive study of occupational therapists'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transi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2), 212-220.
- Santos, A. R., & De La Libra, S. (2016). Occupational therapy and collaborative consultation. *Revista Terapia Ocupacional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27(1), 94-99.
- Summers, J. A., Delliver, C., Turnbull, A. P., Benson, H. A., Santelli, E., Campbell, M., et al. (1990). Examin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process: What are family and practitioner preferen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 78-79.
- Thompson, K. M. (1998). Early intervention services in daily family life: Mothers' perceptions of 'ideal' versus 'actual' service provision.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5, 206-221.
- Trivette, C. M., Dunst, C. J., Hamby, D. W., & LaPointe, N. J. (1996). Key elements of empower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Infant-Toddler Intervention: The Transdisciplinary Journal*, 6, 59-73.
- Wallen, M., & Doyle, S. (1996). Performance indicators in paediatrics: The role of standardised assessments and goal setting.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3, 172-177.
- Yong, H. C. (2012). Parent counseling for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2012(7), 328-335.

Abstract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Parents Consultation Experience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Park, Juyoung*, Ph.D., O.T., Jung, Nam-hae**,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ju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Purpose : This study phenomenologically explores and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during parents consultation.

Method : In this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elephon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people who had more than eight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and were working at a private center. Each interview was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and analyzed after transcription.

Results : In this study, 21 themes, 4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ategories were the importance of parents consult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parents consultation. The theme clusters were the meaning of parents counseling, the reciprocity of the parent, the child and the therapist, the efforts of the therapist,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first-tim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parents consultation. This work can als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for improving the parental consultation skill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future.

Key words : Parents consultatio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Phenomenological study